

지식경영관점의 고용형태로 본 개발경제학적 정책연구

윤 숙 자*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는 21차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자료와 부가조사인 ‘고용형태’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통계를 다루었다.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으며, 임금근로자(3.7%)에 비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19.3%)의 차이를 보였으며, 300만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의 직장 선호도는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이다(통계청, 2018). R 언어를 사용하여 신뢰도와 회귀분석과 분포 그래프 등을 통해 생활만족도와 소득별 만족도에 대한 모형중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값은 독립변수 중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관계’가 전반적인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경제학은 저소득과 고소득 국가 간 차이점과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마이클 크레이머는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폭발한 이유로 오-링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으며 시스템의 제약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제약조건이 디딤돌로 작동하기 위한 경제정책시스템으로, 자영업 부분에 대한 지식경영관점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따라서 도적맞은 가난을 방지하여 제약조건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작동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100명의 근로자중 적어도 25명이 자영업이다(OECD,2018).그러나 부존자원이 없는 제약조건을 디딤돌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주요용어 :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1. 서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18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상승했으나 한국은 3.12%(2017년)에서 2.95%(2018년), 2.72%(2019년)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권지호 외, 2019).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 윤플래닝연구소 연구소장

II. 선행연구

1. 지식기반관점(Knowledge Based View)

지식은 사실이나 이론과 같이 쉽게 성문화될 수 있는 형식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성문화되기 힘든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구분된다(Grant, 1996b). 또한 지식경영의 근본목적은 성과의 증대이고,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공유와 아울러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Nonaka & Takeuchi, 1995; 김능진 외, 2006).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식경영관점(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이란 지식기반의 경영관점을 의미하며,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가치 사슬(Value chain)로 이어지는 경험적 지식이 사장되지 않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한국노동패널』 ‘고용형태’ 조사의 자료(row data)를 활용하는 분석연구이다.

2.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개발 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저소득과 고소득 국가 간 차이점, 사회·정치적 요소를 분석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의 분석을 중요시 하며(Bell, 1987; Arndt, 1981; Todaro 외, 2006; Dilip 2008)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경제 원조의 형태별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실험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위키피디아, 2017).

개발 경제학의 초기 경제학자로는 로젠스타인-로단(Paul Rosenstein-Rodan), 닉시(Ragnar Nurkse), 루이스(William Arthur Lewis), 허쉬만(Albert Otto Hirschman)들이고 그 가운데 로젠스타인-로단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이재율, 2009).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Progress and Poverty』 에서 “물질적 진보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빈곤이 발생하고, 이는 그 사회의 구조가 갖는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George, 1976).

그리고 디턴(Angus Deaton)은 개별 가구 조사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론으로 미시 경제학·개발경제학 등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두루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빈곤 완화를 위한 실험적 접근”으로 노벨경제학상(노벨위원회, 2019)을 받은 세 명 중의 하나인 마이클 크레이머는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Space Shuttle Challenger)가 폭발한 이유로 오 링이라는 일종의 고무줄이 추운 날씨에 얼어서 밀폐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기름이 새어 나와 폭발했으며(O-Ring theory), 기능 면에서 차이 없는 옷에 대한 디자인의 가치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작용하기에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Michael Kremer, 1993).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 또는 하나의 경제시스템은 합의 작용이 아니라 곱의 작용이 작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제약이론(ToC)이란 모든 시스템은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제약요소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시스템의 제약요소를 찾아낸 후, 주어진 조건에서 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 제약요소의 해소 과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영 개선 철학으로 골드랏(Goldratt)에 의해 1980년 중반에 제시되었다(김선민 외, 1997).

따라서 'OECD 회원국 경제에서의 자영업 부문 비중 결정요인과 정책 시사점'에서 경제성장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 자영업 부문의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경제성장과 혁신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1인당 GDP는 자영업 부문 비중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경제성장이 일정단계에 이르면 정(+)의 관계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 U자형 관계가 시현되었다. 실업률은 자영업 부문 비중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실업률이 높아 임금근로의 기회가 줄어들수록 자영업을 선택하는 밀어내기 가설의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자영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잉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본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자영업 부문의 비중 결정요인과 내부구성에 대한 더욱 포괄적 분석을 통하여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비하여 뚜렷이 높은 원인을 규명하고 자영업 부문 비중의 적정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조치를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전인우 외, 2006).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 25.496%)은 전체 근로자 중 OECD 5위로 4분의 1이 종사하고 있어서 OECD 평균(약 1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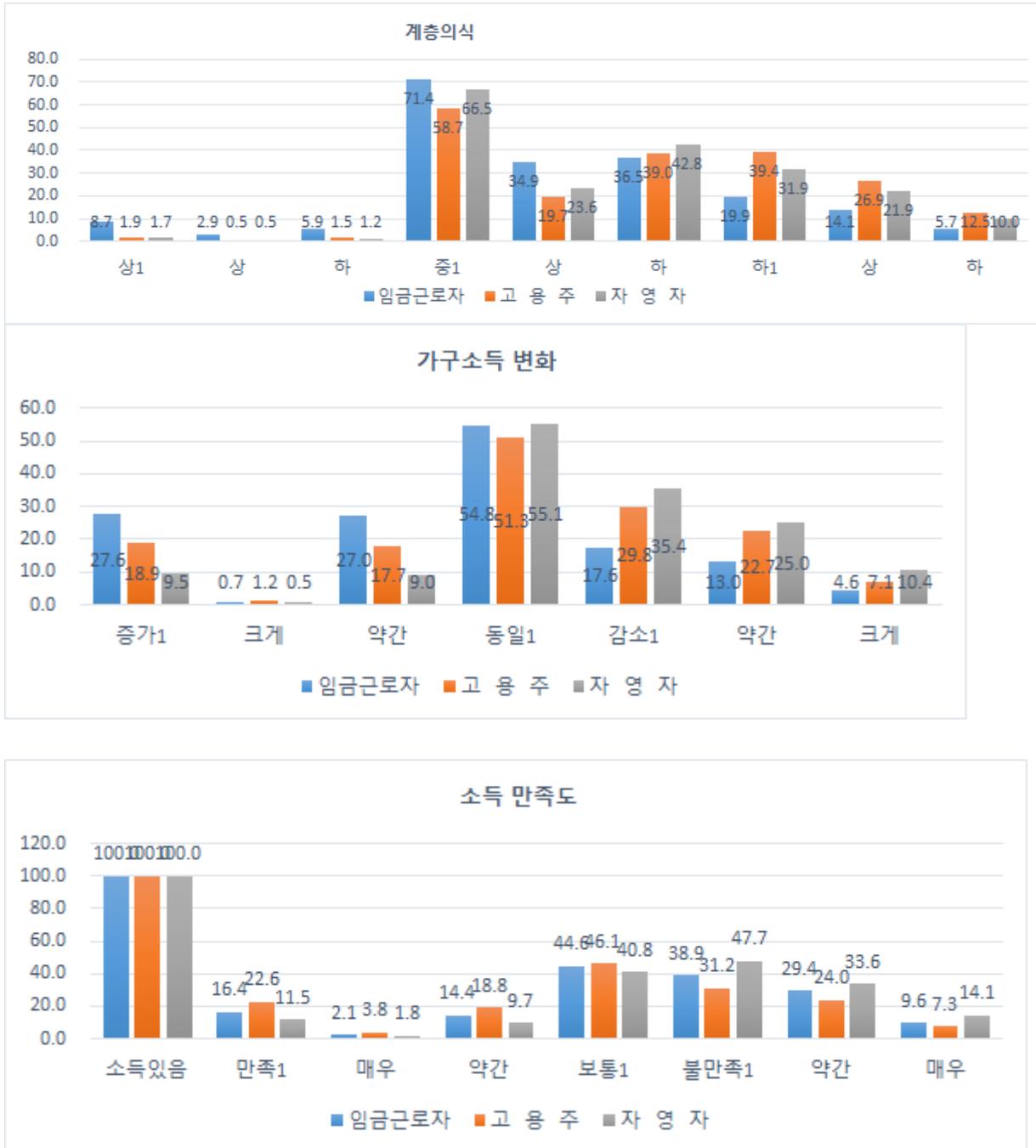
고용성과는 경제성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및 자원 부존과 같은 기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구조·문화 등과 같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 경제·산업정책 및 복지·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고용없는 성장'이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 나라의 문제이며,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그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1990년대 말에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그리고 일본은 버블붕괴라는 큰 충격을 겪은 이후에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황덕순, 2010).

2019년 사회조사 결과는 복지, 사회참여, 문호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의 5개 부문에 대하여 전국 약 1만 9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5일에서 5월 30일 동안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직업 선택 시 '수입(38.8%)'과 '안정성(25.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청년들의 직장 선호도는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이었다(통계청, 2019). 그리고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와 관련된 통계 내용을 차트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계층의식, 소득 만족도, 가구소득 변화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는 항상 자영업자임을 보여준다.

먼저 계층의식 순위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상(8.7%), 중(71.4%), 하(19.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용주, 자영업자이며, 소득 만족도는 고용주가 만족(22.6%), 보통(46.1%), 불만족(31.2)로 가장 높

고, 다음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순위이다. 가구소득 변화에서 임금근로자가 증가(27.6%), 동일 (54.8%), 감소(17.6%)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용주, 자영업자 순위이다.

[그림 1]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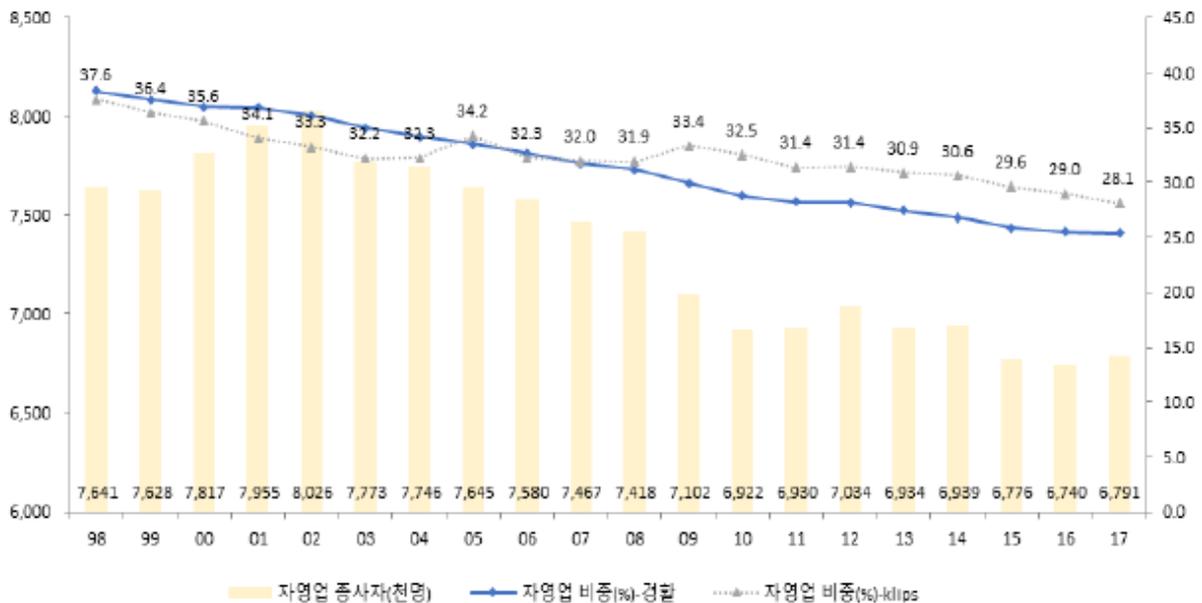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자료, 2019

자영업 지원 및 자생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영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 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기업성장이 멈춘 것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위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김철민 외, 2015).

통계표준용어의 자영업자(Self-ownership)란 혼자 또는 파트너와 사업하는 사람이다. 직접 이루어지는 경제적 지원보다 먼저 정책상 다루어질 제도나 내용은, 자영업에 대한 제약을 가진 공공정책의 개방직 인사채용, 입찰이나 공고, 용역과제 공모에서 신청자격이나 응모자격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대기업 또는 10인 이상 법인 관련 경력자,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우선시되는 제도의 규제완화이다. 예를 들면 해박한 박사출신의 자영업자 또는 관련 연구를 한 전문가라도 정부의 연구용역이나 공공기관의 용역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수많은 창업 관련 한국 자영업자의 지식은 경영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은 전체 근로자 중 25.496%로 OECD 국가 중 5위로 평균(약17%)보다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따라서 100명의 근로자 중, 적어도 25명이 자영업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이다.

[그림 2] 취업자 중 자영업종사자의 비중과 규모(단위: 천 명, %)



자료(금재호, 20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적인 경제성장에 이어 지금은 정책오차(Policy errors) 또는 “도적맞은 가난(박완서, 2007)”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거짓(Policy lies)에 관련된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저출

산, 저성장, 고령화가 작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관련이 많은 파이썬이란 프로그램 언어가 있다. 파이썬(Python)2에서 썼던 코드를 파이썬(Python)3에서 그냥 사용하면 실행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듯, 출산하느라 경력단절이 된 여성, 출산 장려금에 대한 정책 등 여러 제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기존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림]과 같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저소득층(62.63%)이 월등히 높은 현상, 소득이 낮아 결혼도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교육을 받는 여성의 경우 등,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있고 저소득 계층과 집단이 있다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작동되는 경제성장시스템은 걸림돌로 작동될 가능성도 있다. 부족자원이 없는 국가일수록 인적자본의 활용여부는 취업실태와 경제성장과 직결되므로 연관되는 시스템의 경우 보는 것, 안 보는 것의 상보적인 시스템분석이 이루어진 후 실행 해야 할 경제정책인 것이다. 특히 투자에 비례한 성과가 없을 경우이다.

<그림 3> 표본의 소득 계층별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All
(세) 평균연령	44.57	42	42.68	42.39
% 남성	55.29	63.12	57	61.21
% 여성	44.71	36.88	43	38.79
% 미혼	18.57	18.80	20.55	19.09
% 기혼	58.32	74.96	76.67	73.53
% 이혼 및 사별	23.11	6.24	2.77	7.38
% 자녀 유	37.37	52.88	43.51	49.58
% 자녀 무	62.63	47.12	56.49	50.42
% 상용직	39.74	63.18	67.59	61.52
% 임시일용직	39.7	17.01	7.19	17.63
% 자영업	20.52	19.81	25.22	20.85
% 고졸	68.47	48.6	27.87	46.96
% 대졸	28.51	47.53	62.04	48.14
% 석사 이상	3.02	3.87	10.09	4.90
%농,임,수산업,기타	7.13	1.57	1.26	27.76
%고위관리직,전문가,준전문가	17.06	26.3	39.85	23.13
% 기계장치종사자 및 기능원	21.81	25.29	15.26	38.73
%사무,판매, 서비스종사자	36.5	38.58	40.61	8.28
% 단순노무 종사자	17.49	8.25	3.03	2.10
(원) 자산	1940.23	3560.87	13627.69	5193.15
(원) 부채	2230.32	3885.30	10600.31	4914.13
(원) 시간당 임금	8414.55	12736.39	21617.99	13874.3
% 도보 및 자전거	20.73	13.73	9.84	13.77
% 승용차, 오토바이	39.96	51.62	59.39	51.79
% 대중교통, 통근버스	37.15	33.23	29.76	33.0
% 기타	2.16	1.42	1.01	1.42
N	463	3175	793	4431

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 및 부가조사 17차(박세정, 2018)

III. 실증자료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의 21차 자료이다. 본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된 7,090개 가구표본과 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4,445명의 개인표본 중 98월표본은 11,887명, 통합 원표본은 13,739명이다.

가. 표본

본 연구는 21차 패널조사중에서 개인용/신규용 설문 응답 대상자를 표본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패널 데이터의 21차년도 부가조사 ‘고용형태’ 설문에서 ‘지난 3개월간 일자리를 통해서 올린 월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이 있는 3,245명이 분석에 사용된다.

표본의 성별 구성과 월평균 소득이 <표 1>에 제시되고 있다. 표본은 1,889명의 남성과 1,356명의 여성으로 구성되며, 전체 표본의 13%가 50만원 미만, 18.9%가 50~150만원 미만, 28.3%가 150~300만원 미만, 39.8%가 3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성별로 본 월평균 소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245		1,889	[58.2]	1,356	[41.8]
1	422	(13.0)	135	(7.1)	287	(21.2)
2	614	(18.9)	269	(14.2)	345	(25.4)
3	917	(28.3)	534	(28.3)	383	(28.2)
4	1,292	(39.8)	951	(50.3)	341	(25.2)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조사.

표본: 2018년 일자리를 통한 월평균 소득이 변별된 3,245명 개인.

() 안은 소득별 비중, [] 안은 성별 비중.

표본의 노동형태별 구성과 월평균 소득이 <표 2>에 제시되고 있다. 표본은 1,870명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운영 등의 일자리와 아닌 경우의 1,375명 임금근로자로 구성되며, 전체 표본의 13%가 50만원 미만, 18.9%가 50~150만원 미만, 28.3%가 150~300만원 미만, 39.8%가 3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등이 훨씬 더 적은 소득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노동형태로 본 월평균 소득

	전체		자영업 등		임금근로자	
전체	3,245		1870	[57.6]	1375	[42.4]
1	422	(13.0)	371	(19.3)	51	(3.7)
2	614	(18.9)	365	(19.5)	249	(18.1)
3	917	(28.3)	456	(24.4)	461	(33.5)
4	1,292	(39.8)	678	(36.3)	614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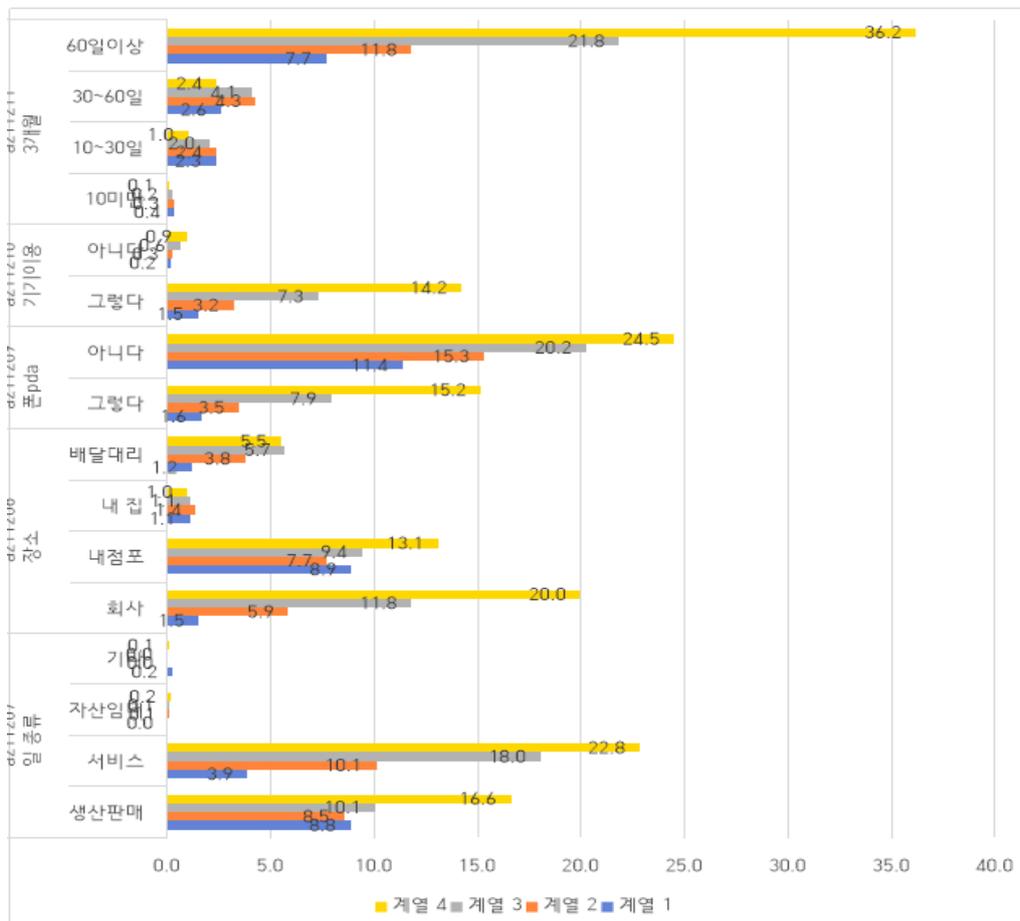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

표본: 2018년 일자리를 통한 월평균 소득이 변별된 3,245명 개인.

() 안은 소득별 비중, [] 안은 노동형태별 비중.

그 외 소득구간별로 알아 본 관련 고용형태별로 지난 3개월 중 일한 날짜, 컴퓨터나 핸드폰, PDA 등의 기기 이용 여부, 주로 일하는 장소, 주로 하는 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고용형태별 소득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

공공서비스 요금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중심으로 중기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임금근로자의 공무원일 경우와 비임금근로자의 자영업일 경우 의료보험요금 부담은 차이가 있고 2018년은 유일하게 GDP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은 경우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그림 5]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학원 이상의 여성이 의외로 남성과 차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은 남성이 50.6%인데 비해 여성은 25%로 차이가 현저히 컸다. 국가적 활용이 교육투자만큼 활용도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3.7%)와 비임금근로자(19.3%)의 차이가 나며, 30만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도 역시 임금근로자(44.7%)와 비임금근로자(36.3%)는 비슷한 차이가 났다.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년들의 직장 선호도는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이었다(통계청, 2018).

IV. 분석자료 및 기술통계

1. 표본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21차 『한국노동패널』 소득을 기준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3161명의 응답자가 표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통계

		전체		남성		여성	
n		3,161		1,849	[58.5]	1312	[41.5]
sage	1	999	31.6	573	31.0	426	32.5
	2	781	24.7	459	24.8	322	24.5
	3	758	24.0	459	24.8	298	22.7
	4	624	19.7	358	19.4	266	20.3
so	1	406	12.8	125	6.8	281	21.4
	2	590	18.7	257	13.9	333	25.4
	3	901	28.5	531	28.7	370	28.2
	4	1264	40.0	936	50.6	328	25.0
hak	1	1910	60.4	1047	56.6	863	65.8
	2	427	13.5	276	14.9	151	11.5
	3	705	22.3	449	24.3	256	19.5
	4	119	3.8	77	4.2	42	3.2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조사.

연령별 분포인 sage1, 2, 3, 4는 1925~58년생, 1959~68년생, 1969~78년생, 1979~99년생으로 분류해서 분석했으며 6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미만으로 60세 이상은 여성이 32.5%로 1.5% 더 많다.

소득별 분포인 so1, so2, so3, so4는 월평균 50만원 미만, 50~150만원,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을 올린 경우로 월 평균 50만원 미만은 여성이 21.4%로 14.6%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학력별 분포인 hak1, 2, 3, 4는 고졸이하, 전문대학졸업이하, 석사 졸업이하, 박사 재학 이후로 여성이 고졸이하 65.8%로 9.2%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측정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만족도 평균값을 대상으로 lm1,은 각각 생활만족도 중에서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을, lm2는 각각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를, lm3는 현재 상태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묶은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 jm1은 직무만족도인 ‘일에 만족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하고 있다,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이며, jm2는 요인별 직무만족도로 ‘임금, 안정성, 하는 일,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전 가능성, 소통 및 관계’에 대해서 묶은 것이며 역시 5점 척도이다.

종속변수는 ‘전반적 생활만족도’로 평균은 2.561이며, 표준편차는 0.547이다. 또한 독립변수중 평균이 높은 변수인 mp, happy를 묶은 lm3 역시 10점 척도라 높은 편이다.

<표 4> 변수별 기초 통계

Statistic	N	Mean	St.Dev.	Min	Max
mall	3,161	2.561	0.547	1	4
mesti	3,161	2.537	0.605	1	5
mp	3,161	6.324	1.470	0	10
happy	3,161	6.515	1.419	0	10
up	3,161	2.584	0.641	1	5
elevel	3,161	4.177	0.782	2	6
re	3,161	1.828	1.106	1	10
lm1	3,161	2.752	0.491	1	4.667
lm2	3,161	2.461	0.484	1	4
lm3	3,161	6.420	1.357	0	10
jm1	3,161	3.467	0.605	1	5
jm2	3,161	2.744	0.494	1	5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조사.

2. 신뢰도 분석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해 본 신뢰도(Cronbach's alpha)는 모두 0.6이상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이는 항목은 생활만족도의 lm1이며 0.7이다.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항목은 0.92로 jm1로 묶은 변수이다.

<표 5> 신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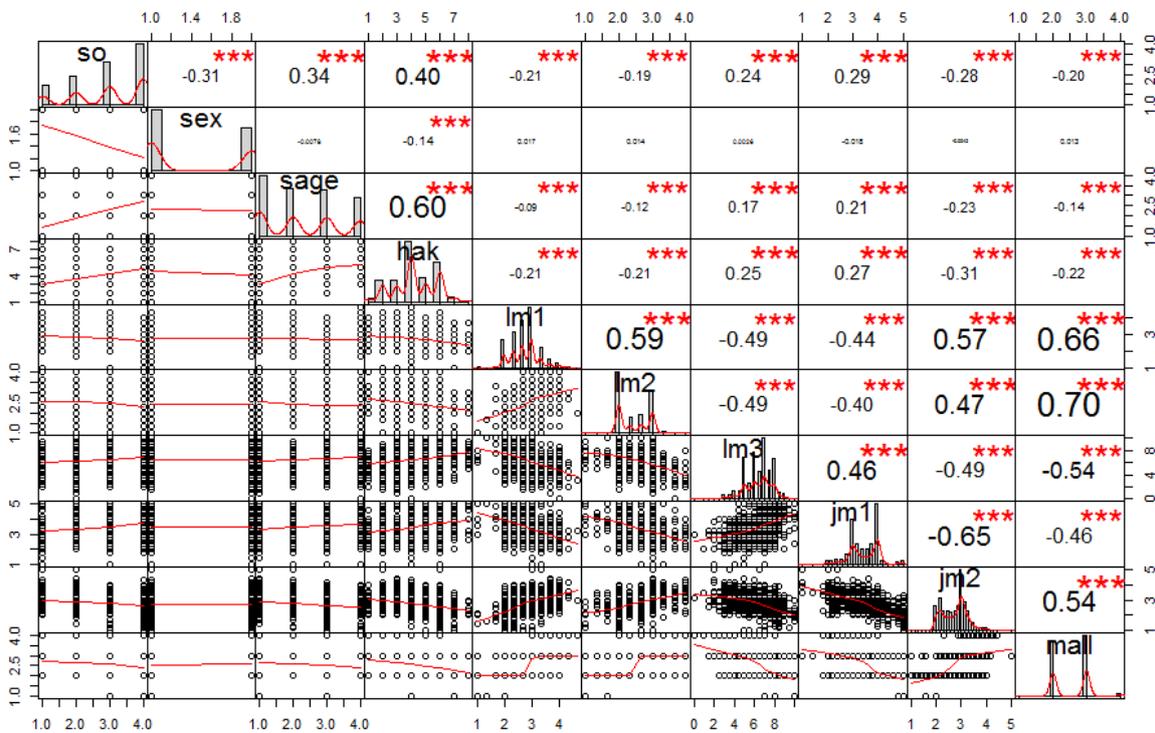
Reliability analysis	
Call: alpha(x=data[, c("msu", "mju", "myo")])	raw_alpha = 0.7
Call: alpha(x=data[, c("mga", "mchin", "msa")])	raw_alpha = 0.87
Call: alpha(x=data[, c("mp", "happy")])	raw_alpha = 0.87
Call: alpha(x=data[, c("man1", "man2", "man3", "man4", "man5")])	raw_alpha = 0.92
Call: alpha(x=data[, c("man11", "man12", "man13", "man14", "man15", "man16", "man17")])	raw_alpha = 0.88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조사.

3. 상관관계 분석

R 언어로 분석하는 변수들 간의 증감 방향성을 분석하는, 자료 분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다. 통제 변수인 성별, 나이, 교육, 소득 유형이 있으며, 독립변수를 생활 만족도인 lm1, lm2, lm3, 그리고 취업 만족도인 jm1, jm2, jm3 있으며 종속변수인 생활 전반의 만족도(mall)를 통해 대부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그림 6> 상관관계 분석



4. 회귀 분석

R 언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모형에서 각 변수의 개별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3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큰 경우 해당 요인을 제외한다(채서일, 2005; 이희연, 노승철, 2013).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가 0.45171에서 0.62276 사이인 0.3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또한 1.605732에서 1.605732로 10보다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value	Pf(> t)	공선성통계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Intercept)	0.718667	0.107697		6.673	2.95e-11 ***		
so	0.00740	0.006865	0.0142	1.079	0.28061	0.70491	1.4186
sex	0.008799	0.013127	0.0079	0.670	0.50272	0.87212	1.14663
sage	-0.01049	0.006947	-0.0214	-1.511	0.13100	0.60773	1.645456
hak	0.004562	0.005511	0.0122	0.828	0.40783	0.56413	1.772628
lm1	0.323631	0.017010	0.2904	19.026	< 2e-16 ***	0.52298	1.912175
lm2	0.452420	0.016289	0.4001	27.774	< 2e-16 ***	0.58722	1.702922
lm3	-0.0523	0.005641	-0.1295	-9.261	< 2e-16 ***	0.62276	1.605732
jm1	-0.0448	0.013694	-0.0495	-3.272	0.00108 **	0.53243	1.878147
jm2	0.10926	0.018225	0.0985	5.995	2.26e-09 ***	0.45171	1.878147

R=0.793 Multiple R-squared: 0.616, Adjusted R-squared: 0.6149

F-statistic: 561.6 on 9 and 3151 DF, p-value: < 2.2e-16(S.codes: 0 '***' 0.001 '**' 0.01 '*' 0.05 '.')

소득별 만족도에 대해 대한 모형중 결정계수 R2 값이 0.6149로 모형의 설명력이 약 62%임을 볼 수 있고, 독립변수들이 p<0.01보다 작아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값은 독립변수 중 lm2(0.4001)인 '관계'가 전반적인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8년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의 21차 개인자료와 부가조사인 ‘고용형태’자료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로 통계를 다루었다.

경제학의 한 분야인 개방경제학은 저소득과 고소득 국가 간 차이점, 사회·정치적 요소를 분석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의 분석을 중요시 한다. “물질적 진보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빈곤이 발생하고, 이는 그 사회의 구조가 갖는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George, 1976). “세계 빈곤 완화를 위한 실험적 접근”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마이클 크레이머는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Space Shuttle Challenger)가 폭발한 이유로 오 링이라는 일종의 고무줄이 추운 날씨에 얼어서 밀폐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기름이 새어 나와 폭발했으며(O-Ring theory), 하나의 시스템 또는 하나의 경제시스템은 합의 작용이 아니라 곱의 작용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도적맞은 가난을 방지하여 제약조건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함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오링이론과 경제정책에 대한 제약이론을 논리적으로 다루었다. 경제성장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 자영업 부문의 지식경연관점으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경제성장과 혁신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루고자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은 전체 근로자 중 25.496%로 OECD 국가 중 5위로 평균(약17%)보다 높은 수준이다. 100명의 근로자 중, 적어도 25명이 자영업이라는 얘기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이 높아지면 2차 경제성장도 가능해진다. 부존자원이 없는 제약조건에서도 디딤돌로 1차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다음으로 21차 개인자료 중 소득을 기준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3161명의 응답자를 표본으로 하여 연령별 분포를 1925~58년생, 1959~68년생, 1969~78년생, 1979~99년생으로 분류해서 분석했을 때, 요인별 직무만족도로 ‘임금, 안정성, 하는 일,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전 가능성, 소통 및 관계’에 신뢰도가 가장 컸다. 또한 소득별 분포는 월평균 50만원 미만, 50~150만원,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을 올린 경우인데, 월 평균 50만원 미만은 여성이 21.4%로 14.6%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학력별 분포인 고졸이하, 전문대학졸업이하, 석사 졸업이하, 박사 재학 이후로 여성이 고졸이하 65.8%로 9.2%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 언어를 사용하여 신뢰도와 회귀분석과 분포 그래프 등을 통해 생활만족도와 소득별 만족도에 대해 대한 모형중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값은 독립변수 중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가 전반적인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언

대학원 이상의 여성이 의외로 남성과 차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은 남성이 50.6%인데 비해 여성은 25%로 차이가 현저히 컸다. 국가적 활용이 투자한 교육비만큼 부가가치 활용도 수준이 제고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3.7%)와 비임금근로자(19.3%)의 차이가 나며, 300만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도 역시 임금근로자(44.7%)와 비임금근로자(36.3%)는 비슷한 차이가 났다.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의 직장 선호도는 선호도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이다(통계청, 2018). 똑똑한 청년들이 창업해서 어디에서든지 날개를 펼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고비용 소비교육에서 고부가가치로의 가치생산적 전환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제약조건에서도 디딤돌로 1차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교차로 시스템을 알면, 걸어야 할 때와 뛰어야 할 때를 알 수 있듯이 시너지를 위한 경제정책시스템을 제고하고 모색할 때이다.

참고문헌

- 고영선(2008),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
- 금재호(2015),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 매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제17차(2014년)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18), 「한국노동패널로 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 『2018학술대회 기초발제』
- 김능진, 김훈(2006), 「지식경영의 핵심성공요인과 혁신행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집』, vol.40, pp. 15-37.
- 김선민, 박광훈(1997), 「계약이론과 선형계획이론의 상호 비교」, 『經營學研究』, 제26권 제4호, pp. 941-959.
- 김철민, 신승만(2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小考: 비판적 고찰」, 『산업혁신연구』 제 31권 4호, pp. 175-205.
- 박세정(2018), 「소득 계층에 따른 시간 빈곤 결정요인 분석」, 『2018학술대회』, pp. 13.
- 백종국(2011), 「한국발전모델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pp. 211-233.
- 이재율(2009), 「초기 개발경제학과 외부경제」, 『사회과학논총』, 제28집 1호, pp. 225-241.
- 이희연, 노승철(2013),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 전인우, 최성호(2006), 「OECD 회원국 경제에서의 자영업 부문 비중 결정요인과 정책 시사점」, 『중소기업연구』.
- 채서일(200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B&M books』
- 황덕순(2010),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의 관계」, 『월간 노동리뷰』, pp. 37-55.
-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표」.
- Abhijit V. Banerjee(1992), "A Simple Model of Herd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3, pp. 797-817.
- Banerjee, Abhijit, V. and Esther Duflo. (2011).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Philadelphia: Public Affairs.
- Dilip Mookherjee(2008) "Development Economics: Theoretical Overview" BREAD Summer School lecture slides, June 30.
- George, Henry. (1976). "Progress and Poverty",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 Goldratt, E. M. and R. E. Fox(1986), "The Race", Croton-on-Hudson, NY, North River Press.
- Grant, R.M. (1996b),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7, pp.109-122.
- Michael Kremer(1993), "The O-Rin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 Nonaka, Ikujiro. and Hirotaka, Takeuchi.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18), *Employment Outlook*, OECD.

OECD(2019), Self-employment rate(indicator).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B%B0%9C%EA%B2%BD%EC%A0%9C%ED%95%99>

www.nobelprize.org

